***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8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6호

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

조선중앙통신 론평 주체91(2002)년 3월 5일

최근 미국외교당국자와 미국회하원의 일부의원들이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핵개발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며 경수로건설을 중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떠들어 대는 부쉬식≪직설화법≫을 본 딴 미국정객들의 개인적의사인지 아니면 미행정부와 국회의 공식적립장과 견해를 반영하려 한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평하고 있다.

명백한것은 현부쉬행정부와 국회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의 강경보수세력들이 지금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미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리정표로 되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여 있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시종일관 성실히 리행하여 왔다.

오늘 미국이 제 할바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기본합의문파기를 위한 구실을 내대고 있으나 그것은 흑백을 전도한 강도적궤변에 불과하다. 조미기본합의문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과정과 오늘의 현실은 미국측이 애당초 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현부쉬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반감을 로골적으로 표현하면서 합의문수정에 대해 떠들다가 드디여 합의문파기주장으로 저들의 속심을 완전히 드러 내 보였다는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고 있다.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되는 것만은 사실이나 미국이 그것을 전면백지화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빈종이장을 놓고 그 의의만을 강조하지 않을것이며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어이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다면 그로부터 초래하게 될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보상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무성 ≪인권년례보고서≫ 비난

조선외무성 대변인 주체91(2002)년 3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대변인은 미국무성이 4일에 발표한 ≪2001년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독재≫요, ≪무법≫이요 ≪정치적 및 민사적권리의 결여≫요 하면서 우리에 대한 판에 박은 험담을 늘어 놓은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혹심한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지대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유엔인권기구에서마저 쫓겨 나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러한 미국이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분수없이 그 무슨 ≪재판관≫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부산을 피우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더우기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어째 보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는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완벽히 담보되여 있으며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제도를 허물어 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영원히 고수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더욱 굳세여질뿐이다.

미국은 저들의 ≪인권기준≫을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할수록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 고립만을 더 초래할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논평

1 조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1 미국무성 인권년례보고서 비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3)

세기와 더불어

4 4장 1절 손정도목사 (1)

여성의 날

6 강반석녀사 / 김정숙동지
6 여성은 꽃이라네
7 한민전 부녀국장 담화 (주체89, 주체90)
7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주체90)

한국민족민주전선

8 운동의 대중화를 생각해본다
8 구국의 소리 뉴스 – 주체91 3월 6일
9 박형에게
9 과연 어느 나라가 불량국가인가

광고

15 월간백서

조선중앙통신

10 주체91, 3월 6일 보도
11 반제계급투쟁관점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가 되자 – 사설 3월 6일

아리랑뉴스

12 북, ≪합의문 구애없이 우리 갈길 가겠다≫
12 북, ≪주적론. 국보법 남북관계 발전 방해≫
12 ≪미군만행진상조사단≫ 평양서 증언 청취
13 여성노동자 천국을 꿈꾸는 신명나는 굿판
13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개최
13 진보적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2002 선거 승리하자
14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공론화 요구 시국선언
14 김근태의 ≪양심고백≫을 제도개선으로
14 한호석소장의 워싱턴디씨 통일강연회
14 김준배씨 주요사인은 구타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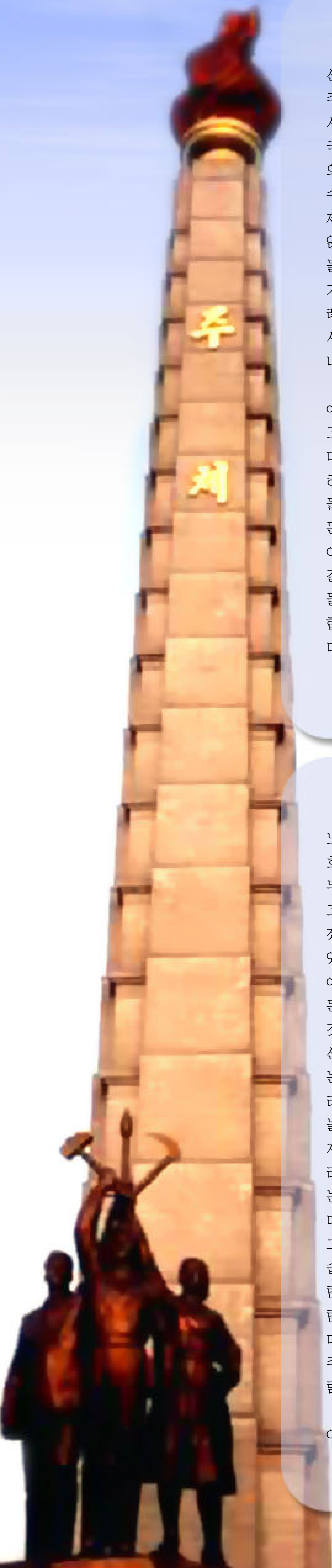
15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3)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의 통일방안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3)

주체67(1978)년 11월 18일



이제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그만두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 미국사람들이 북과 남의 ≪세력균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사람들도 남조선을 계속 붙들고 앉아있어야 큰 이득이 없고 남조선통치배들이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며 또 잘못하다가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손을 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면 북조선이 남조선을 내치고 공산주의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들도 계속 그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미국장관들이 자주 드나드는데 박정희는 그들에게 돈도 찔러주고 기생들도 붙여주면서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여서는 안된다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매수당한 그들은 돌아가서 남조선에 가보니 ≪남침위협≫이 있다고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침≫할 의사가 있었다면 왜 4. 19인민봉기 때같이 남조선정세가 복잡할 때 가만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시종일관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남침위협≫을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우리 민족은 두번다시 동족간의 유혈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0년대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우리는 전후 재더미속에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야수적 만행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빈터위에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흘려 건설해놓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가운데 평양 보통강의 토성랑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옛날 자기네 집이 있던 자리에 가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천리마거리와 보통강주변에 멋있게 꾸려진 공원을 보고는 대단히 놀라더라고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홍콩에 가서 어떤 사람과 담화하면서 ≪평양≫이라는 영화를 남조선사람들에게 보였다가는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현대적으로 잘 건설된 평양을 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남조선에서 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측이 북남회담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판문점에서 하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북과 남이 내왕을 하면서 회담을 하면 남조선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였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오는 남조선기자들을 보면 매번 다른 기자들이였습니다. 한번 북반부에 왔다가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하여 남조선≪중앙정보부≫에서 검열하는데 아마 조금씩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왔던 남조선기자들은 북에도 거지아이들이 많은가 하여 만년필과 학습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는 연필이 많으니 이따위것은 필요없다, 이것을 남조선에서 구두닦이하는 아이들에게나 갖다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의 행동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적십자대표들이 남조선에 나가 어느 호텔에 들었는데 ≪보이≫라고 부르는, 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구두도 닦아주겠다고 하고 옷도 다려주겠다고 하고 목욕할 때에도 들어와 봉사해주겠다고 하고 별의별 일을 다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하고는 자체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구에게 시킬 줄도 모릅니다. 남조선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봉사를 받지 않고도 봉사료를 다 주자 매우 감탄하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는 사상으로 교양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서울의 여러 호텔들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으며 다 인자하다,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이상 점잖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구두닦이를 하고 담배를 파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며 남대문시장에는 지게꾼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적십자회담때 서울에 있는 거지들을 다 어느 섬에 갖다 걷어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물론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산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는 다 놀랍니다. 조선에는 특별히 잘입고 잘사는 사람이 없지만 못사는 사람도 없다, 지게꾼도 없고 구두닦이를 하거나 담배를 파는 아이들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아들을 다 학원에 보내어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면서 잘 교육교양하여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민족적 의무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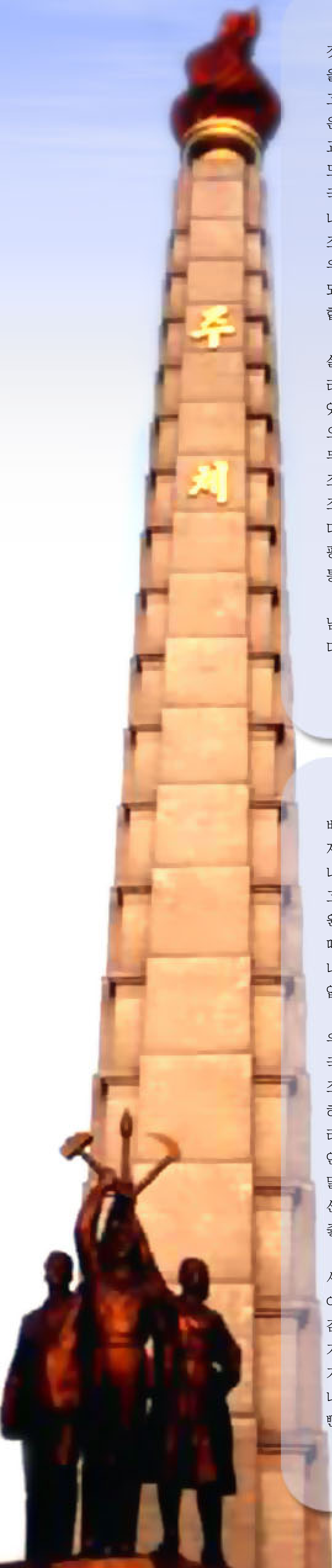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보아도 접대원들과 손님들이 다 점잖고 영화내용도 다 훌륭하며 텔레비전에도 다 건전한 내용만 소개된다, 사회도덕이 아주 건전하다고 탄복하면서 좋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조선에 가보니 카페도 없고 재즈춤 추는 곳도 없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본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마약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아마 미국사회가 부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의 본을 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나 재즈춤을 추는 장소 대신에 극장과 영화관을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극장과 영화관이 없는데가 없으며 농촌리까지 다 구락부가 꾸려져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야 청년들이 영화도 보고 예술소조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매우 건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선동포들가운데 구두닦이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못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10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집에도 가보군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들 보고 조국에서의 생활이 어떤가고 물으면 그들은 일본에 있을 때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못살게 굴었지만 지금은 그런

➡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미국, 일본, 소련과 중국을 다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독립한다고 하여도 미국과 주변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것이 없습니다. 빠찡꼬 같은 것을 하여 돈을 좀 벌까 하면 투전을 하여 다 잃어버리고는 여자들의 가락지까지 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벌써 우리 남편이 교양개조되였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조국에 와서 교양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사람이 될뻔하였는데 조국에 와서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배우고 우리 나라 역사를 배우니 다 조선사람이 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살고 누구나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을 누리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여놓았는데 민족끼리 싸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구태여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해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의미로 보아서도 이제는 미국이 남조선을 포기할 때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을 ≪반공방파제≫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세력이 부산까지 나오면 일본이 큰일 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지어 일본공명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인물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이 분열되어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자고 합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조선을 통째로 다 먹지는 못해도 절반땅이라도 먹어보자는 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추켜세워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으며 자체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이상에는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미국, 일본, 소련과 중국을 다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독립한다고 하여도 미국과 주변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사람들, 특히 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오겠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과 같이 ≪두개 조선≫정책을 쓰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곤난합니다. 그전에 미국 ≪뉴욕타임스≫기자 솔스베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공장에 가서 한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남조선출신이였습니다. 솔스베리가 그에게 당신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가, 나는 미국기자다,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당신이 미국기자인가, 나는 미국놈이라면 적개심이 북받친다, 미군이 왜 남조선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가,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난지 20년이 되어와도 고향에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한다, 저 그림을 보라, 나의 생각은 저 그림과 같다, 미국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그림은 미군 나가라는 구호가 있는 만화였습니다. 솔스베리는 남자들과 말해보아서는 재미없겠다고 생각하고 한 여성 노동자에게 갔습니다. 솔스베리는 그 여성 노동자에게 나는 미국기자인데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자 그는 나는 미국놈들의 폭격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였다, 미국놈들은 나의 철천지 원수이다,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솔스베리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군들에게 우리가 미국사람이나 기자들을 받아도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조미관계가 좀 나아졌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을 교양해서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이 좋을 수 없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미군 나가라는 구호를 써붙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인민들의 반미감정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며 북조선에 가보니 반미일색이더라고 글을 쓰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그릇된 대조선정책을 시정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을 좋은 벗으로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가운데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폐쇄된 나라≫라고 자꾸 헐뜯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 한번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현실도 보이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도 윌슨의 시대에 ≪민족자결론≫이요 뭐요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남의 나라의 자결권을 짓밟으려고 하는가, 왜 남조선군사파쑈독재자들을 내세워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게 하는가,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집권한다면 그가 누구든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손잡을 것이라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통일된다면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미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잘 해설하면 미국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큰 도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최동오선생을 만난 심정에서 선생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투쟁해나갑시다.

나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기 조국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 손정도목사 (1)

나는 만주의 정세가 매우 험악한 때에 감옥에서 석방되였다.

반일독서회사건으로 온 도시가 발칵 뒤집히던 1929년의 가을처럼 길림의 거리에는 계엄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도로교차로점들과 관청건물의 주변에서는 독군서의 헌병들이 통행인들을 세워놓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총대를 들고 이골목, 저골목에서 가택수색을 하는 군경들도 보이었다.

리립삼의 좌경로선때문에 온 만주땅이 진통을 겪고 있던 시기여서 공기가 이만저만 살벌하지 않았다. 그때 만주지방에서는 5.30폭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력사가들속에서 5.30폭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투쟁을 중국사람들은 ≪적색5월투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투쟁을 5.30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해에서의 5.30참살 5돐에 즈음하여 벌어진 투쟁이고 또 5월 30일에 그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지도권을 잡고 있던 리립삼은 1925년 5월에 있은 상해시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로동자, 학생, 시민 3파가 파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폭동형식의 투쟁을 전개하여 쏘베트유격대를 창설할 것을 전당에 지시하였다.

이 로선이 내여오자 만주성위산하의 혁명조직들은 리립삼이 제창한 ≪한개 성 또는 수 개 성의 우선적 승리≫라는 구호를 들고 군중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돌격식 집회를 소집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동만의 거리와 농촌들에는 폭동을 선동하는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5.30폭동의 시작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들의 공세는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그 파동이 벌써 길림에까지 미쳐오고 있었다. 감옥을 나와 내가 맨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마항에 있는 손정도목사의 집이였다. 일곱 달동안 꾸준히 옥바라지를 해온 손정도일가 사람들에게 고

손정도목사

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자기 자식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었다.

≪군벌이 자네를 일본놈들에게 넘겨줄가봐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조이었네. 형을 지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왔으니 천만다행일세.≫

≪목사님께서 후원을 잘 해주신 덕에 저는 감옥생활을 한결 헐하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옥리들에게 돈도 많이 찔러주셨다는데 그 신세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그때 중국관내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손정도목사에게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길림에서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손목사는 한숨을 쉬고 나서 서글프게 웃었다.

≪장작림까지 맥을 추지 못하게 이제는 이 길림바닥에서 우리를 비호하고 후원해줄 힘도 바랄 수 없게 되었네. 장작상이 조선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군대가 쳐들어와도 야단이야. 3부가 통합되면 독립운동도 날개달린 룡마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룡마는커녕 집안싸움으로 평온할 날이 없으니 이 고장에 더 버티고 있을 생각이 나지 않네.≫

관내에는 그가 상해림시정부 의정원 부의장과 의장직을 겸임할 때 가깝게 지내던 인사들도 있었고 흥사단 시절의 단우들도 있었다. 손정도가 관내로 들어가려고 결심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다시 련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보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고 생각된다.

손정도목사는 일제의 만주침공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주는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저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의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답을 하자 손목사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길밖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세계 5대강국의 하나라는 걸 명심하라구. 의병이나 독립군도 일본의 신식무장앞에서는 맥을 못추고 주저앉았네. 하지만 이왕지사 결심을 했으면 판을 크게 벌려보게.≫

나는 내가 길림에 발을 붙인 초기보다 별로 어수선하고 썰렁해보이는 목사의 집안풍경을 살펴보면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전에는 이 집에서 축음기 소리도 들리고 시국을 론하는 독립운동자들의 활기에 찬 목소리도 들리였다. 손목사를 찾아오는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소년회원들이 부르는 ≪바람아 불지 말아≫라는 구슬픈 노래가락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었다. 목사의 주변에서 맴돌던 이 집의 단골손님들은 모두 류하로, 흥경으로, 베이징으로 종적을 감추고 ≪황성예터≫와 ≪방랑가≫를 애달프게 부르던 축음기도 입을 다물어버리었다.

손정도목사 자신도 그 후 얼마동안은 베이징에 가 있었다. 베이징은 상해림시정부 초창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던 이름난 력사가이며 문장가이신 단재 신채호가 활동하던 고장이였다. 그 곳에는 신채호 외에도 손정도선생의 동지들이 많았다. 목사가 베이징에 갔을 때는 단재가 동방련맹과의 사업을 위해 대만에 상륙하다가 체포되어 려순감옥으로 끌려간 뒤였다. 신채호가 없는 베이징은 그지없이 고적하고 한산스러워 보이었다. 목사와 단재는 그처럼 큰 우정으로 튼튼히 얽혀져 있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고 조국애를 고취한 일념으로 국사서술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민족의 계몽을 위하여 한동안 출판활동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 ≪혜조신문≫은 그가 울라지보스또크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찍어낸 인기있는 신문이였다. 박소심이 ≪혜조신문≫에 론문을 종종 써보낸 것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던 신채호의 이름이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였다.

로선상으로 보면 신채호는 무력항쟁의 제창자였다. 그는 리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을 다같이 현실성없는 위험한 로선이라고 보았으며 조선민중이 한 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 정황에서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가 되어 폭력파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일부 인사들이 리승만을 상해림시정부 수반으로 내세웠을 때 신채호가 분격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것도 평소부터 리승만의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였다.

≪리승만은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리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리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이것은 그가 림시정부를 조각하는 자리에서 폭탄같이 내던진 유명한 말이다. 그는 림시정부를 탈퇴한 후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에서도 리승만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손정도목사는 이따금씩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채호는 성미가 면도날 같고 주장이 무쇠쪽 같은 사람이였다. 그가 리승만을 리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탄핵할 때 나는 마음 속으로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신채호의 말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였다. 단재의 심정이자 내 심정이였다. 그래서 나는 신채호와 함께 림정을 결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런 발언을 참고해보면 손목사의 정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치론도 위임통치론도 다같이 망상이라고 단정한 사람이였다.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립장을 취하였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거족적인 항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우리의 전민항쟁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런 혁신적 립장은 그로 하여금 리승만과 같은 사대주의자, 야심가가 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해림시정부에서 각원으로 남아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하였으며 결국은 림정과 결별하고 길림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용단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손목사는 길림에 온 후 일본경찰들이 ≪제3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혁신파 인물들과 련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새 세대의 청년들과도 잘 어울리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의를 다하여 후원해 주었다. 그가 교직을 차지하고 있는 대동문 밖의 례배당은 우리의 전용집회장소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례배당에 자주 찾아가 풍금도 타고 연예선전대의 활동도 지도하였다. 손정도목사가 우리가 요구하

신채호

는 것이면 무엇이건 다 해결해 주고 우리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부터 지지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손정도목사도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었다. 내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장작상에게 뢰물을 먹이면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한 청원운동을 이끌고 나간 주동인물도 바로 손목사였다.

손목사는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뿐 아니라 일가견을 가진 혁명가로 대해주었다. 그는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론의의 대상이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문제까지도 내 앞에 서슴없이 털어놓고 조언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손목사는 맏딸 손진실과 윤치창과의 혼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길림의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그 혼사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손목사 자신도 딸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였다고 못마땅해 하였다. 그는 딸이 윤치창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가문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다. 윤치창은 친일파이며 매판자본가인 윤치호의 동생이었다. 목사가 딸을 설복하지 못해 속을 썩이고 있을 때 독립군보수파들이 윤치창에게서 자금을 뽑아내려고 한 주일 동안 그를 억류하였다.

≪이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손정도 목사는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어른들의 혼사에 간참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 같아서 얼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서 련애를 하는 데 떼놓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향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준 다음 독립군보수파 인물들을 설복하여 윤치창을 놓아주도록 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베이징에 갔다가 그 다음해인가 길림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오인화, 고원암과 같은 혁신계 인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띠고 있는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길림에 머물러 있은 것을 보면 베이징방면의 독립운동상황도 락관적이 못되었고 그의 건강상태도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감옥에서 나와 손정도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얼굴이 축갔다고 념려해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의 얼굴에 배여있는 병색을 보고 걱정하였다. 그는 고질로 되고 있는 병이 도져 식사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몸까지 병들고 보니 주야장탄일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도 나한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구만. 그놈의 류배살이덕을 단단히 보는 셈이지.≫

손정도목사의 말이었다. 목사사 1919년에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중 가쯔라 다로 암살음모의 혐의로 체포되어 진도에서 2년 동안 류배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 때에 목사는 류배지에서 병을 얻은 것 같았다. 미신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군중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병마도 쉽게 침범하였다.

나는 이듬해 봄에 명월구에서 손정도목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손목사가 길림 동양병원에서 비명에 작고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랑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로서는 목사가 병으로 급사하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반년 전에 만났을 때에도 침상에 눕지 않고 독립운동의 장래를 론하던 사람이 위궤양 때문에 초불처럼 그렇게 쉽사리 꺼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하조직선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목사는 입원 첫날에 벌써 입으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교포사회에는 손목사의 죽음을 모살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모살로 보는 첫 번째 론거는 입원 직전의 손목사의 병세가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한 정도의 위험계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양병원이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병원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하나의 유력한 론거였다. 조선 사람들을 세균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족속들이니 모살이 아니라 그보다 더 흉악한 음모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교포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가장 확실한 론거는 손정도목사가 이름난 애국지사라는데 있었다. 손목사는 일본경찰들이 한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던 요시찰인이었다. 가쯔라 다로의 암살혐의도 혐의지만 상해림시정부 의정원 의장, 림정교통총장, 시사책진회 성원, 흥사단단원, 로병회 리사라는 항일로 일관된 목사의 경력은 일본경찰들로 하여금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인들이 손정도목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시해왔는가 하는 것은 목사가 급사한 직후 길림총령사가 자기네 외무대신에게 ≪불령선인 손정도의 사망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을 특별히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손정도목사의 집과 그의 딸

해석(바다의 돌)이라는 손정도목사의 호에 그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교직자의 간판을 가지고 한생을 항일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량심적인 독립운동자였다. 손목사는 길림에 와서도 정의부의 혁신계인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응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전환과 애국력량의 단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가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를 조직하던 그 무렵에는 만주농민호조사결성 발기인이 되어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동생(손경도)의 명의로 액목현의 경박호일대에 50향의 땅을 사서 농업공사도 경영하였다. 안창호가 제창한 ≪리상촌≫의 일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박호반은 안창호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이었던 리상향건설의 후보지였다. 목사는 농업공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장례는 봉천회관에서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합방이전부터 수 십년의 풍상을 독립항쟁에 바쳐온 목사의 령전에는 일본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40명 남짓한 조객들만 모였다고 한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대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경찰이 립회하는 식장에서 눈물인들 제대로 흘리며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간도땅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손목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 위해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야말로 은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길이며 인민의 손과 발에서 쇠고랑을 벗겨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후 나와 손정도목사의 유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세기가 다 가는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분단의 비극은 우리를 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과 파도사나운 대양으로 사정없이 갈라놓고 있다. 나는 평양에, 손인실은 서울에, 손원태는 오마하(미국)에 우리는 반세기 이상이나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한 번도 손정도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차속에서도 풍화되거나 덞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련련히 이어져 왔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혈을 뿌리던 은인들과 렬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력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 손원태가 우리 해외동포영접부의 초청으로 부인(리유신)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성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류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팔갑을 앞둔 백발로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짓궂은 장난도 그의 백발 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주석님!≫하고 부르며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은 눈물이었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되어서야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 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 있은 문명시대에 십대에 헤어졌던 사람들이 80이 다되어 만났다면 우리를 로년기에로 끊임없이 떠밀어온 그 시간의 루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 것이 아닌가.

≪손선생은 어떻게 되어 머리가 그렇게 세었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손원태에게 물었다.

손원태는 길림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약간 응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석님을 만나뵙고싶어 마음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시절에 김주석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석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였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시절에는 나도 손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손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 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체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롱과 유모아를 련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던 제4성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그가 병리학의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로인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 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어진 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로인이 되어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가.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리 바닥에서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사탕 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 싶으면 함지에서 한 알 꺼내어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루 뱉아서 팔군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군의 입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 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 소리로 웃군 하였다.

(내일 계속)

강반석녀사

(1892.4.22 – 1932.7.31) – 정치사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할머님이시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 하리 칠골(오늘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열렬한 애국자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위돈신녀사의 둘째따님으로 탄생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부모님과 오라버님이신 강진석선생님으로부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반일애국정신이 강하시였으며 로동을 사랑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아름다운 정신과 이웃과 벗들을 돕는 착한 성품과 기질이 높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 가정을 이루시고 만경대에서 생활하시였다. . . .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면서 혁명의 위대한 뜻을 더욱 가슴 깊이 체득하게 되시였으며 그 뜻을 받드시여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 . .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기울이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공부를 열심히하시도록 고무하여 주시였으며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지니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 .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는 맏아드님의 혁명사업을 적극받들어 주시며 맏아드님께서 개척하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힘 있게 걸어 가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밑에 1926년 12월 26일 무송에서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그 첫 회장으로 사업하시였다. 반일부녀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주체형의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이였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녀성조직이였다. 반일부녀회의 투쟁목적은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당면하게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을 무송주변 마을들에 파견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는 한편 대영, 대전자 마을을 비롯한 여러 마을들에 나가시여 부녀회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부녀회조직은 무송일대를 중심으로 백산지구에 급속히 확대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조직의권고로 안도로 이사하신후에도 안도일대의 넓은 지역에 부녀회조직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시였다. 강반석녀사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은 자주의 길을 따라 힘 있게 발전하게 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사업을 방조하시고수령님께서 창간하신 신문 ≪새날≫을 무송시내는 물론 무송에서 멀리 떨어 진 부락들에까지 배포하시였으며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운반과 조직의 비밀련락을 맡아 수행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를 마치시고 흥룡촌에 돌아 오신후 안도경찰에 체포되시였을 때 부녀회원들을 발동하여 수령님을 석방시키시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시였으며 수령님과 뜻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들을 한없이 아끼시고 극진히 돌보아 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 때에는 부녀회원들을 발동하시여 군복을 만드시였으며 유격대가 창건된후에는 유격대를 돌아 보시며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을 조직동원하시여 반일인민유격대의 옷, 신발 등을 마련해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유격대창건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찾아 오는 청년들의 식사와 잠자리도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 . .

강반석녀사께서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드님의 혁명위업에 대하여 생각하고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 . .

강반석녀사의 혁명적생애와 녀사께서 쌓아 올리신 고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별처럼 빛나고 있다.

김정숙동지

(1917.12.24 – 1949.9.22) – 정치사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덕에서 탄생하시여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 . .

김정숙동지께서는 1935년 9월 안도현 처창즈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17살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항일유격전에 나서시였다. . . .

김정숙동지께서는 처창즈전투(1935. 10), 내도산전투(1936.11), 시난차전투(1936.7), 서강전투(1936. 7), 무송현성전투(1936.8)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시여 영웅적위훈을 세우시였으며 특히 무송현성전투시기 동산의 잘룩목에서 불멸의 위훈을 남기신 때로부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더욱 명성을 날리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7년 1월 백두산밀영에서 공산당에 입당하시였으며 이해 봄부터 가을까지의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으시고 장백현 도천리와 국내 신파지구에 나가시여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서 혁명의 배신자 엄광호놈과 견결히 싸우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시였으며 무산지구진공작전(1939년)과 대부대선회작전(1939–1940년) 등에 참가하시여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데서 남 다른 모범을 보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을뿐아니라 홍기하전투(1940. 3), 대사하치기전투(1940년 초여름)를 비롯한 전투마다에서 자신의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수령님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였다. . . .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활동시기에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한 정치군사활동에 적극 참가하시였으며 특히 1941년 여름부터 사격훈련, 통신훈련, 스키훈련, 도강훈련, 락하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뛰여 난 기질을 보여 주시였다. 1944년 3월 8일에 있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대규모 사격경기에서 단연 1등을 차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41년 봄 위대한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예를 지니시였으며 수령님께서는 이 사진뒤면에 친필로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라고 쓰시였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된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싸우신 **김정숙**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새길신문≫은 ≪김녀사의 반생≫, ≪독립과 해방을 위해 녀성의 몸으로 반생을 투쟁, 따르자, 이 희생정신을!≫ 등의 제목으로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하였다. 광복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 건설방침을 받들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사업에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45년 11월부터 근 1개월에 걸쳐 함경북도 선봉군과 청진시 일대에서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그후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곳의 공장, 기업소와 농촌과 어촌 등을 찾으시여 인민들로 하여금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정치조직인 녀성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서 투쟁하시였으며 녀성들이 새 조국 건설에서 한몫을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갈 혁명투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부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제분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도록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 오시였다.

실로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오로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생애였다.

시

여성은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아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 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아들딸 무럭무럭
키우는 꽃이라네
정다운 아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행복의 한자리가
비어 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어려운 위훈의 길에
젊음을 바친다네
정다운 아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나라의 한자리가
비어 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꽃 · 이 · 라 · 네

한국민족민주전선 부녀국장 3.7 담화

구국전선 주체89(2000)년 3월 7일

오늘 우리는 미국침략군의 한국여성학살만행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하늘땅에 사무치고 있는 비통한 상황에서 ≪3.8국제부인의 날≫ 90돌을 맞고 있다.

여성의 생존권과 선거권확보를 요구해 1만5천명의 뉴욕여성들이 시위투쟁을 벌인 날을 기념해 ≪국

제부인의 날≫이 제정된 때로부터 지난 90년간 세계적 범위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투쟁은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위한 세계적 변혁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역사의 진보와 사회적 번영을 떠미는 일익을 맡은 당당한 주체로, 남녀평등권은 여성들의 마땅한 권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지구촌에 여성해방의 깃발이 높이 나부낀 때로부터 근 한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한국여성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당한채 2중3중의 고통과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사는 곧 이 땅의 여성들을 닥치는대로 강간능욕하고 학살한 피비린 죄악의 역사이다.

나치 히틀러의 민간인학살을 훨씬 능가하는 미제침략군의 몸서리치는 6.25양민학살만행에 의해 죽은 수백만의 피살자들의 대부분도 적수공권의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이었다.

식민지한국을 치외법권의 놀이터로, 한국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있는 미제야수들은 이 땅의 가는 곳마다에서 10대의 소녀이건, 60대의 노파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능욕하고 집단강간하고 때려죽였으며 알몸에 페인트칠을 해 거리에 내쫓는 치떨리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 윤금이, 이기순, 허주연, 전지나, 이보비, 신차금 등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오늘은 또 서울 이태원동에서 미군야수에 의해 30대여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런데 김대중친미매국정권은 순진하고 꽃다운 우리의 여인들이 미군의 군화밑에 벌레처럼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 한마디 못하고 살인자에 대한 법적 심판은커녕 오히려 미군범죄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늘 이 땅은 우리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줄 국가주권도 없고,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는 여권사각지대로, 미군강도배들의 난무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식민지한국의 통탄할 현실은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내쫓고 김대중매국정권을 매장할 때에야만 외세가 없는 자주적인 민주사회에서 우리 여성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떨치며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근 한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식민지노예의 치욕과 불행을 더 이상 다음세기로까지 연장시킬 수 없으며 90년전 세계 여성근로자들이 높이 치켜들었던 여성해방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고 힘차게 싸워 이 땅에서 예속과 사대매국을 종식시키고 여성해방의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 여성들은 미군야수들의 천인공노할 성폭행과 살인만행을 단죄고발하고 여론화하여 대중적인 반미항전의 불을 지펴올림으로써 반미민족해방투쟁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 애국민중과 더불어 이 땅의 수천만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릴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부녀국장 담화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3월 7~9일

오늘 우리는 새 세기들어 첫 3.8국제 부인의 날을 맞고 있다.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한 국제부인의 날이 제정된 때로부터 지난 91년간 세계적 범위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투쟁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구촌에 여성해방의 깃발이 높이 나부낀 때로부터 근 한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한국여성들은 외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 당한채 이중, 삼중의 고통과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40여년 세월 우리 여성들은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이 강요되는 속에 무려 20만명이나 강제 연행, 납치되어 침략군의 성노예로 이국 땅에까지 끌려가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였고, 강제노동의 죽음의 고역장에 끌려가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혹사당하고 무리로 쓰러져갔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미국의 식민지통치로 이어진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사는 곧 이 땅의 여성들을 닥치는데로 강간, 능욕하고 무참히 학살한 피비린 죄악의 역사이다. 나치 히틀러의 민간인 학살을 훨씬 능가하는 미제침략군의 몸서리치는 6.25양민대학살만행에 의해 죽은 수백만의 피살자들의 대부분도 적수공권의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이들이었다.

식민지 이 땅을 치외법권의 놀이터로 한국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있는 미제야수들은 이 땅의 가는 곳마다에서 10대의 소녀로부터 60대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림없이 마구 능욕하고 집단강간하며, 때려죽이고,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해 죽이고, 전신에 페인트칠을 해 거리로 내쫓는 짐승도 낯을 붉힐 치떨리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도 미군기지촌과 그 주변, 이 땅의 전역에서 미제양키들의 끊임없는 범죄적 만행으로 우리 여성들의 피와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그야말로 오늘 이 땅은 우리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을 지켜줄 국가적 주권도 없고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는 여성인권의 사각지대, 미제침략군의 난무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통탄할 현실은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낼 때만이 외세가 없는 자주적인 민주사회에서 우리 여성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근 한세기동안이나 지속되어온 식민지 노예의 치욕과 불행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으며 새 세기 여성해방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고 힘차게 싸워 이 땅에서 예속과 친미사대매국을 끝장내고 여성해방의 새 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서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여성들은 미군야수들의 천인공노할 성폭행과 살인만행을 단죄, 고발하고 대중적인 반미항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서 반미민족해방투쟁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계애국민중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릴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1)년 3월 7~9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일보시는 박수양씨의 글 ≪세계 여성의 날에 부쳐≫를 임현아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는 이 땅, 아니 지구촌의 여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1909년 미국에서 수천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미성년노동금지와 여성생존권 등을 요구해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1910년에 세계 여성의 날이 지정되었다. 그때로부터 91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여성들은 사회에서 당당한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악덕업주들은 경제위기를 구실로 인원감축을 해도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인 정리해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모든 일터에서 남녀노동자의 차별대우가 심하고 심지어 월차생리휴가제, 산전산후 휴가제와 같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대우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 걸핏하면 성적폭행을 당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해서 제놈들 배를 불리려는 가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회제도에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도 이 땅의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당당한 이 사회의 일원임이 틀림없다. 사회의 그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열심히 뛰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누가 이 여성들을 보고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가. 누가 저 여성들을 보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가.

우리 여성들은 이 땅위에 가장 귀중한 존재를 안아 올린 사회의 강자다. 우리 여성들은 모든 것을 품에 안아 뜨겁게 달구어 내는 가장 강인한 존재다.

보라. 여성을 사회의 약자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깨부수고 여성억압을 탈피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 겯고 나선 여성들. 우리들의 권리,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우리들 스스로가 투쟁으로 찾을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으며 새롭게 가다듬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운동의 대중화를 생각해본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4일~5일

새해를 맞이한 지금 학생운동에 거는 민중의 기대는 자못 크다. 그건 올해 사회의 민주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이행, 반외세자주화투쟁에서 선봉장은 다름아닌 청년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기대에 부응해서 올해에 학생운동이 대중운동의 선봉대로 더 우뚝 서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운동의 대중화는 학생운동발전을 위해 나서는 필연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운동은 어느 한두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백만학도가 함께 하는 대중운동이다. 대중운동으로써의 학생운동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운동을 대중화해야한다. 대중화를 떠난 운동의 승리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운동발전을 위한 자기성찰의 견지에서 현시기 학생운동을 투시해 보면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학생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선 학생운동핵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운동의 당위성과 목적과 의의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관점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이지 못한데 있다. 일부 학생들속에서 아직도 운동에 무관심한 처사를 보이고 있는 것 등은 바로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 준비정도에 걸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현시기 학생들의 생활상요구와 ****, 조선일보운동전개, ****확보, 재단비리척결과 같은 것은 도외시하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이밖에도 학생대중의 사상정신적 준비와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구호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이 공감하는 투쟁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이같은 문제들에서 교훈을 찾고 하루빨리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작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의식화는 대중운동의 선행작업이다. 더욱이 정세가 격변하고 대중운동이 발전할수록 그에 걸맞게 의식화작업을 보다 심화시켜야 운동의 발전과 승리를 가져올수 있다.

한총련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의 옥중시들을 묶어 발간한 책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킨 것이라든가 또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이행을 가로막는 이회창을 매장시키기 위해 이회창바로보기운동,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의식화작업은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감정, 정서에 걸맞게 다양하게 진행해야한다. 운동핵심들은 학생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 그리고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주화와 반미자주화투쟁의 당위성 등을 대자보게시, 동아리활동, 연예대활동, 인터넷과 피시방을 통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구호를 잘 드는 것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구호는 투쟁의 목적과 과제, 향방을 명시해주는 생동의 기치이며 대중을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위력한 기치이다. 그런데 운동핵심들은 현실의 절박한 활동인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여기에 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이해관계와 생활상 요구가 반영된 구호를 적절히 배합시켜 들고 나가야한다. 대학등록금인상자율화반대,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반대, 국가보안법철폐, 용산기지아파트설립계획백지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반대와 주한미군철수, 이회창반대, 주적론철회 등이 그 예로 될수 있다.

올바른 투쟁형식과 방법을 ****하는 것 역시 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 할수 있다.

운동핵심들은 서명운동, 청원서보내기, 보수언론구독거부 등 낮은 형태의 투쟁과 동맹휴업, 집회, 시위 등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을 적절히 배합해 조직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학생대중과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고 그들이 공감할수 있는 투쟁형식과 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명실공히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해 나서는 대중운동으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다. 자기의 전국조직이 있고 투쟁목표가 명백한 이상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지 못할 아무런 걱정도 없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임으로써 시대와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6일

미국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

최근 미국에서 매우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혜정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 : 럼스펠트미국방장관과 미국최고수뇌부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국방최고수뇌회의를 열어 반테러전 확전 등 세계전략차원의 전쟁전략수립 등을 집중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4일 럼스펠드국방장관과 9명의 육해공군대장들이 국방최고수뇌부회동에서 사후 반테러전 확전에 대비한 세계전략차원의 전쟁수행과 본토방어를 위한 사령부발족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호전광들이 테러전 확전을 위한 전쟁음모를 꾸민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인 것입니다.

부쉬가 말로는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느니 북미대화를 원한다느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군부우두머리들이 전쟁수행을 위한 이같은 모의를 벌인 것은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지 2월 22일자에 따르면 존 볼튼미국무부차관은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 카터행정부의 선언을 오류라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느니 부쉬행정부는 무고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느니 뭐니하며 떠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은 비핵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 3월 1일자에 따르면 미국은 부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00명의 관리로 구성된 예비정부를 만들어 워싱턴 외곽에서 비밀리에 가동중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예비정부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 대표자들이 파견돼 가족과 떨어진 채 동부해안지대의 비밀장소에서 지하생활을 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고 정부소식통은 이는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걸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 따로따로 진행하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수만명에 달하는 미침략군과 첨단전쟁장비들을 끌고 들어와 주한미군과 국군 등과 합세해 육지와 공중, 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소동을 벌이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쉬가 한국에 대한 전쟁행각을 단행한 후 벌어지는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침전쟁,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정이였습니다.

이회창 대선후보 합의추대 반대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는 4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당 일각에서 이회창총재를 대선후보로 합의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합의추대를 반대했습니다.

이부총재는 또 당지도부 방침에 무조건 순응하는 분위기가 비주류주장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고 이것이 박근혜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상의 관련 구속학생 석방 요구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생기행연합이 산하 경기동부기행연합대표인 경원대학교 박준마학우를 비롯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학생 등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2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에 의해 더이상 민족적 자존심을 유린당할수 없다는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8일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은 청년학생의 민족적 기개와 정신을 힘있게 과시한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이 투쟁에 박준마학우를 비롯한 청년학생들은 조국강토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가려는 미국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자신의 온몸을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런 학생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경제주권도 정치군사주권도 미국에게 빼앗긴 지금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당국이 이를 하지 않기에 한총련 애국학생들이 나섰고 박준마학우가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에게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6일~7일

충북지역의 노동운동에 몸담고 계시는 김영수씨가 조선일보사에서 노동하고 계시는 박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임기수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박형과 헤어진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전에 친구들로부터 박형이 조선일보사에 노동자로 취직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박형, 저는 며칠전에 조선일보바로보기운동이 주최한 전국****결의다지기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날 대회에 참가한 우리 노동형제들은 민족앞에 저지르고 있는 조선일보의 죄행을 필독하고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다짐했어요.

정말 토론자들이 연설하면서 열기를 내뿜으로 조선일보가 저지르고 있는 죄행을 하나하나 열거할때마다 치밀어오르는 분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매문지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 참을수가 없더군요.

그때 떠오르는게 박형의 모습이였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살기 위해서 조선일보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겠지만 입에 밥을 떠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을 박형의 모습이였어요.

박형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얼마나 악랄하게 헐뜯고 있으며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실현을 위한 각계 민중의 애국활동을 어떻게 모해매도하고 있는가를 박형도 잘아시겠죠.

조선일보는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도 악의에 차서 허위,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으면서 공안당국의 강경탄압을 부추기고 있어요.

박형, 우리는 언론을 사회의 목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사회의 입과 귀, 눈이라고 일러오잖아요. 물론 이 땅에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언론이 불과 몇 안되지만 특히 조선일보는 이를 악용하여 악명을 떨쳐왔죠.

조선일보는 매시기 변색하며 권력과 자본에 아첨해 반민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매문지로 그들의 어용나팔수 노릇을 해왔어요. 오늘도 그곳 노동자들이 찍어내는 조선일보가 반통일, 반노동자적인 선전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의협심이 강한 노동자가 있으면서도 계속 반민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조선일보가 출간되는 걸 더이상 좌시묵과하고만 있을수 없는거 아니예요.

지금 반조선일보투쟁은 각계층 민중속에 급격히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세차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노동자대중도 노동자의 생존권문제를 비롯한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왜곡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더는 그대로 둘수 없다는 의지예요.

박형, 박형도 밥술이나 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하고 그 이익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각하겠죠. 일자리를 잃는다는 위구심보다도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실현을 위한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할거구요.

박형, 더이상 몇푼의 돈을 위해 정의를 불의로, 애국을 매국으로 매도하는 어용매문지, 어용나팔수의 손발노릇을 하지 말아야할 우리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박형, 박형은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속에도 대의명분을 일깨워주어 그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도록 잘 이끌어야 할겁니다. 그렇게해서 정의와 애국에 언제나 충실했고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 땅의 노동자계급임을 자각케해서 그들의 뭉쳐진 힘으로 사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할겁니다.

더이상 반민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강도높은 항의를 들이대고 이것을 바로 잡도록 사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겁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언론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때 조선일보사의 노동자들도 시대와 역사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 겁니다.

박형, 성미가 곧고 강직해 이밤 잠못 이루고 모대기고 있을 박형을 그리며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실현투쟁에 박형도 이바지했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정말 옳은 얘기라고 봅니다. 조선일보사의 노동자들도 이 땅의 노동자계급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시대와 민중의 부름에 화답해 나서야 할겁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불량국가인가

김세철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요즈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이며 시사평론가 노엄 촘스키가 쓴 책 ≪불량국가≫가 서방 나라들을 중심으로 베스트 셀러로 되고 있다. 이 책을 풀이하면 미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항의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습격의 목표로 된 것은 미국이 못된 짓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불량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당한 지적이다. 부시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북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을 불량국가라고 악의에 차 떠들었다.

그러나 역대적으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름아닌 미국이 다해왔었다.

미국은 ≪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면서 유엔과 국제법, 국제관계규범도 안중에 없이 제멋대로 망탕 행동하고 있다. 또한 저들의 잘못은 감추어두고 있지도 않은 남의 ≪결함≫을 걸고 들면서 내정간섭을 일삼았으며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무력행사도 서슴없이 감행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쩍하면 들고 나오는 ≪인권≫과 ≪테러≫문제 등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마치도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해마다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고 있다. 그들은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압력정책을 실시하면서 무력행사까지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했다.

1990년대에만도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수십차의 무력간섭을 감행했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유고슬라비아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코소보의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유고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다가 나중에는 근 80일간에 걸치는 공습으로 도시와 마을들, 공공시설을 무참히 파괴하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다.

인권의 불모지인 미국이 제 코도 씻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철면피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테러문제에서도 역시 미국은 마치도 ≪테러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테러지원국≫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다른 나라들을 시비하며 ≪반테러≫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문제들에 관해 제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을 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반테러≫라는 간판을 들고 반제자주적인 나라 지도자들과 국가들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감행했다.

1986년 리비아에 대한 야수적인 공중폭격만행을 감행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비행기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전 파나마국가방위군 총사령관이었던 토리호스와 모잠비크 대통령이었던 마셸을 살해했다. 미국의 테러행위를 꼽자면 수없이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들의 테러행위는 덮어 두고 있지도 않은 다른 나라 ≪테러≫문제를 꺼들며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부시정권이 하는 노릇을 보면 잘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작전이 거의 종결된 오늘 미국은 전쟁을 다른 나라들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는 나라들,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불량국가≫들 즉 ≪악의 축≫을 작전목표로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했다. 저들은 각종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들을 마음대로 개발, 생산, 배비, 확산시키며 국가테러 등 불량행위를 도맡아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고 ≪불량국가≫요, ≪악의 축≫이요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부시정권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불량국가≫,≪악의 축≫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국제법과 유엔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대로 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이성≫이라고 간주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전세계가 부시의 ≪악의 축≫론을 비난하며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시정권은 저들의 힘의 만능론이 세계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자주와 평화에로 흐르는 현시대의 추세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놀아대다가는 세계의 강력한 저주와 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6일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는 조선녀성들의 모습에 감동 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외국녀성들은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는 조선녀성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따쥐끼스딴 정부녀성위원회대표단 단장 나쓰리지노바 라또파뜨 쇼흐무로도브나는 방문기간 여러곳을 돌아 보면서 조선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정치적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평양산원, 창광유치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나는 조선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펼치시는 **김정일**각하의 정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원 캄만 타웡라은 조선녀성들처럼 긍지 높고 행복한 녀성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녀성들에게 돌려 주신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느꼈다고 말하였다.

일조음악예술교류회 회장 오가사와라 미쯔꼬는 조선녀성들은 복 받은 녀성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녀성들은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여 나 향기를 풍기고 있다. 나는 조선녀성들의 정치적지위가 확고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보다 휘황한 조선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를 높이 모신 조선녀성들은 혁명의 꽃, 나라의 꽃으로 더욱 만발할것이다.

김정일총비서칭송 서울 리념써클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활동하는 한 리념써클 성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를 열렬히 칭송하면서 소식지 ≪희망≫에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진행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행사내용을 특집하였다. 소식지는 모임에서 채택된 백두산선언의 내용을 요지로 수록하였다.

소식지는 ≪세계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선언했다. 백두산선언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인들의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표시이고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심장의 선언이다. 만민이 우러르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라고 쓰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봄철국토관리 총동원사업 시작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였다.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강산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에 떨쳐 나섰다.

이번 총동원기간에 각 도, 시, 군들에서는 중요도로와 철길주변들, 주민지구와 산들에 수억그루의 아카시아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도시와 농촌의 풍치를 돋구며 땔나무림과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용재림을 더 조성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에 강하천들의 제방보수와 정리를 다그치고 600여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며 해안방조제들에 수십만의 장석을 쌓아 큰물과 해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게 된다.

2월명절에 즈음하여 로작을 세계 43개 나라에서 번역출판

뜻 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세계 43개 나라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 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등 22종의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였다.

라오스국가출판사, 끼르기즈스딴 대통령행정부산하 출판사, 로씨야 빨레야출판사, 슬로벤스꼬공산당출판사, 메히꼬로동당출판사, 뽀르뚜갈조선친선협회 등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이름 있는 출판사들에서 로작들을 출판하였다.

부쉬의 망언을 규탄 여러나라 정당, 단체

최근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 든 미국대통령 부쉬의 망언을 단죄규탄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것은 정치적미숙아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부쉬의 망발은 조선의 북남사이의 대화를 가로 막는 대화부정태도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부쉬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이 세계평화와 관련한 자기의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어떤 침략도 메히꼬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형제적조선인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련대성을 보낼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 및 협조로씨야협회는 성명에서 부쉬의 망언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단죄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 및 협조로씨야협회는 각국의 정당, 정부, 국제기구들, 단체,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반테로전쟁≫을 주권국가들과 자주적인 인민들을 반대하는데 악용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취할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하였다.

≪렬등생≫으로 락인된 일본의 수치

로동신문

≪로동신문≫ 6일부는 ≪(렬등생)으로 락인된 일본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에 있은 미국대통령 부쉬의 일본행각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일본이 ≪렬등생≫으로 된데 대한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일본을 ≪렬등생≫으로 보는 근거로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자부심≫에 넘쳐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일본의 경제형편이 경제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수 없으리만큼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신문에 의하면 1992년에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 죠지 부쉬가 미국대통령으로서 일본을 행각하였을 때 당시 일본대장성고관이 그앞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그때 미국은 일본식경영방식을 본보기로 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렬거하면서 오늘의 강사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며 ≪일본의 고관은 10년전의 슈퍼맨(가장 우수한 사람)으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기억력이 나쁜 학생으로 되였다.≫고 혹평하였다.

지난 시기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동료이면서도 가장 말쨴 경쟁자로 되여 왔다. 한것은 미일사이에 무역, 보험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마찰이 심한 사정과 관련된다.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마찰과 분쟁이 그칠새 없었다. 상전격인 미국의 강압과 하인격인 일본의 앙탈질로 싸움이 승부가 나지 않는 공회전만을 거듭하였다. 몇해전까지도 일본은 미국과의 경제분쟁문제에서 배짱을 부릴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은 일본을 ≪거의나 무섭지 않은 나라≫로 보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가 일본을 ≪렬등생≫으로 묘사한것은 경제적파산의 위험계선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제정신을 잃고 상전에게 맹종맹동하며 비굴하게 놀아 대는 일본에 대한 야유, 조롱이다.

오늘 미국은 일본의 불량채권처리문제를 놓고 불 같은 독촉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자존심을 세워 보겠건만 일본은 묵묵히 그것을 감수하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일본경제라는 것이 미국의 리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내외의 비난이 울려 나오고 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부쉬의 이번 일본행각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부쉬는 일본을 ≪유신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나라≫로, 현 일본당국자를 ≪위대한 개혁주의투사≫로 추어 주면서 일본에 개혁을 다그칠것을 요구해 나섰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형편이 악화되면 미국경제가 영향을 받을것을 우려한데로부터 나온 요구이다. 말그대로 손님이 주인 보고 이래라저래라 훈시질하는 격이 되였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는 부쉬의 훈시질을 저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받아 들이면서 감지덕지하여 머리를 조아리였다.

오늘 일본당국자들은 일본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미국에 끼치는 손실에 대해 더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확실히 일본은 자주적대가 없는 나라이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줴버리고서라도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 일본의 태도이다. 여론들은 일본의 처사를 ≪아량≫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타성으로 보아야 할지 그 결정은 일본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최대의 채권국의 지위를 잃고 있으며 미국의 손발노릇을 하는데로 기울어 지고 있다. ≪반테로≫를 구실로 미국이 벌린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손발노릇을 착실히 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전쟁때 미국이 ≪얼굴을 보이라≫고 하자 인디아양지역에 저들의 함선들을 보내면서 미군에 정보를 제공한다, 연료를 공급한다 어쩐다 하고 열성을 부리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저들의 이러한 대미굴종, 대미추종이 마치 ≪국제적공헌≫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가 혹평한바와 같이 일본이 ≪렬등생≫으로, 미국의 그림자로 조 받고 있는것은 백번 싸다. 일본당국자들은 자기 나라가 ≪렬등생≫으로 락인된데 대하여 수치를 느껴야 한다. 일본이 앞으로 제 정신을 가지고 만사를 대하지 않으면 더 큰 모욕과 조롱을 당할것이다.

반제계급투쟁관점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가 되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3월 6일

≪ㅌ.ㄷ≫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21세기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 섰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고 세대와 세기는 바뀌였지만 우리 혁명의 반제계급적성격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있을수 없다. 지금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가로 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이 악랄해 질수록 계급투쟁관점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투쟁에 대한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계급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계급투쟁관점이 투철해야 한다.

계급투쟁관점을 세운다는것은 모든 문제를 계급적선에서 보고 판단하며 확고한 원칙성과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혁명의 리익,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관점과 립장을 지닌다는것을 말한다.

계급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계급투쟁은 순간도 중단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벌어 지는 모든 투쟁을 언제나 계급적으로 고찰하며 확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투쟁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은 타도제국주의구호를 드는것으로 시작되고 첨예한 반제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전진하고 승리하여 온 혁명이다. 피어린 항일혁명전쟁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비롯하여 우리가 넘고 헤쳐 온 모든 단계, 모든 시대의 혁명투쟁은 투철한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원칙성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는 가장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이였다. 오늘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도 제국주의자들과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계급적선에서 예리하게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할수록 반제계급투쟁관점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야 한다.

침략과 전쟁,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 막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새 세기에 들어 와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최근시기 그 실현수법은 날이 갈수록 강도적인것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 강권과 전횡이 우심해 짐에 따라 세계적범위에서의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 우리 시대야말로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반제계급투쟁의 시대이다.

오늘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은 우리 나라에 돌려 지고 있다. 자주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에로 나아가는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힘의 과신≫에 사로잡혀 오만해 질대로 오만해 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폭언도 거리낌없이 되풀이하며 침략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가장 첨예한 반미대결장으로, 반제계급투쟁의 최전선으로 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제계급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계급투쟁관점에서 보고 대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높이 든 강성대국건설의 구호는 견결한 반제계급의지가 맥박치는 계속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이다. 그 어떤 원쑤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힘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국을 건설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압도하고 사회주의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침략위협과 고립압살책동속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면 반제계급의식이 강해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을 가로 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 질수록 확고한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계급투쟁관점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과의 준엄한 대결속에서 백전백승을 떨쳐 온 우리 혁명의 긍지 높은 력사와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언제나 승리와 위훈을 떨쳐 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한 20세기의 긍지 높은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 빛내여 나가야 우리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또다시 닥쳐와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결사수호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다.

지금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진군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실은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섰지만 우리의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한다. 모든 문제를 계급적관점으로 보고 풀어 나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원칙에서 추호의 물러섬이 없이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전진할수 있다.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혁명전쟁과 계급투쟁의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에게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대치하는데서 생길수 있는 사소한 안일과 해이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고 우리의 계급진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책동을 어느 하루도 중단한적이 없으며 날로 더욱 교활하고 음흉해 지고 있다. 누구나 확고한 계급투쟁관점을 지녀야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의 혁명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나갈수 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투쟁관점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반제계급투쟁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과는 끝장을 볼때까지 싸우겠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계급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도 양보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며 또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각오를 가지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는 죽음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유화정책으로 나오든 군사적강경에 매달리든 언제나 투철한 계급적립장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하여야 한다.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계급적선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계급투쟁을 떠난 혁명과 건설이란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것도,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며 혁명적원칙과 계급적대를 확고히 세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에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그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건설도 우리 식대로 다그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것을 내세우고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훼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가장 철저하고 가장 강력한 반제계급투쟁의 기치이다. 제국주의의 군사적침략과 압살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 지고 있는 오늘 군사를 중시하고 반제투쟁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것보다 더 큰 중대사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승리가 있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가 선차이고 모든것을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복종시켜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국방사업에 요구되는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살며 일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감히 불질을 한다면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 나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서 반제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언제나 혁명의 다음세대를 노리고 반사회주의책동을 악랄하게 벌려 왔다. 오늘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초점은 새 세대들에게 돌려 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새 세대들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반제투쟁정신과 계급의식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도록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새 세대들이 반제계급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의 대, 계급의 대를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력사적으로 류례 없는 재난과 시련을 강요하고 오늘도 우리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우리의 불 타는 계급적증오심은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일대 비약으로, 조선사람의 강의한 기질과 본때를 보여 주려는 비상한 자각과 열정으로 분출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도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싸움이라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한키로그람의 석탄을 캐고 한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도, 현대과학의 진리를 한걸음 더 밝혀 내도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계급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대담하고 참신하게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계급교양의 거점들을 더 잘 꾸리고 특히 신천박물관에 대한 참관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적원칙성이 강하고 계급적자각이 높은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배짱으로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시며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아가자.

북, ≪합의문 구애없이 우리 갈길 가겠다≫

미국 ≪경수로 완공 2003년은 대단히 위험≫

≪북미 기본합의문의 이행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되는 것만은 사실이나, 미국이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조건에서 우리는 빈 종이장을 놓고 그 의의만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3월 5일 조선중앙통신)

≪대북경수로 완공시한인 오는 2003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일각에서는 이를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북이 IAEA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제네바합의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3월 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

북미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네바합의에 대해 ≪같은 날≫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는 부시대통령의 1월말 ≪악의 축≫ 발언과 이에 대한 이북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양측의 대결 국면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이 요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북이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갈수록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 식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미국이 이북이 이미 여러 차례 거부한 조기핵사찰의 수용을 재촉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은 ≪양측의 긴장관계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북미간의 제네바합의 이행을 둘러싼 설전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당장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북과 미국이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를 각각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슈워츠 사령관도 강조했듯이 ≪2003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계속 이북에게 조기핵사찰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북은 조기핵사찰 수용불가를 거듭 밝히면서 경수로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2003년에 제네바합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2003년≫은 9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해온 이북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북의 미사일 실험발사유예 약속이 만료되는 해이고, 이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MD 체계의 일부가 한반도 안팎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는 해이다. 북미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남의 안일한 정세인식과 대응에 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결국 북미간에 대화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94년과 98년에도 위기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대화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말고 그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조성된 긴장감은 부시의 방한을 통해 일정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2월 중순 방한시 ≪이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말은 방한 이전에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처럼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미국의 이북 공격여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이북에 대해 온갖 험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비친 것이 ≪지금 당장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듯이, 이북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북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말이다. . . .

이는 곧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선제공격≫은 정책 옵션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강한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무장한 부시행정부가 9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클린턴행정부보다 신중할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위기를 예방하느냐≫에 있다. 전쟁 가능성이 ≪기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지는 주어진 상황 못지 않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점차 첨예해지는 북미간의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개입해서 풀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원론적으로는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한국측에 약속하면서도, 조기핵사찰의 관철 및 경수로의 화력발전소로의 대체 등 이른바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을 추구해왔다. 더구나 ≪악의 축≫ 발언 이후에는 ≪이북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제네바합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김대중정부의 요구를 ≪조용히≫ 묵살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북 역시 김대중정부가 약속한 전력지원을 김대중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실천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조기핵사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수로가 거의 완공되고 핵심부품을 인도하기 전에 받기로 명시돼 있는 핵사찰을 경수로사업이 4-5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북은 경수로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시간이 갈수록 그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금 한반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북 핵문제와 전력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욱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7

주적론 · 국보법 남북관계 발전 방해

이북은 7일 이남의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물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좋게 발전돼오던 남북관계가 냉각국면에 빠져들어 모든 대화가 결렬되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나라의 정세가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특히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이남당국에게 있어서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세력은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은 주적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정한 민족공조가 이뤄질 수 없고 오히려 민족내부에 반목과 대결만을 조장할 뿐이며 설사 남북이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또 이남의 보수우익세력이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합세해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며 ≪이것은 지난 시기 대화를 운운하면서 대화의 막뒤에서 침략자와 야합해 반북대결 전쟁책동을 벌려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대화를 모두 깨버린 이전 군부독재자들의 범죄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못박았다. 방송은 이어 이남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한 칼질로 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기자
연합뉴스 2002/03/07

미군만행진상조사단 평양서 증언 청취

미국의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이 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6.25전쟁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덕호 교수는 ≪이 땅에서 저지른 미군의 만행은 역사와 결부하여 고찰해야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사실과 자료를 들어가며 미국의 ≪조선침략사≫에 대해 증언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또 리옥희, 김영환, 김용만씨 등은 미군에 의해 혈육을 잃은데 대해 언급하고 ≪미제야말로 가장 극악한 살인마, 승냥이들≫이라고 규탄했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단 단장인 미국의 ≪평화를 위한 노병조직≫ 브라이언 윌슨 대표는 ≪북과 남의 인민들의 증언을 듣고 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며 ≪이것을 세계 면전에 폭로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의무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그는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서 감행한 만행들은 인정하지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미국의 ≪미군만행진상조사단≫은 지난 5일 평양에 도착했다.

김두환기자
연합뉴스 2002/03/07

얼쑤! ≪여성 노동자의 천국≫을 꿈꾸며 춤추세

여성노동자 천국을 꿈꾸는 신명나는 굿판 벌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와 전국여성노동조합(대표 최상림)은 3.8 세계여성의 날 94주년을 맞이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 최저임금 등 여성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타파, 여성 노동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여성노동의 봄날을 염원하며 기원굿 한판을 선보였다.

이날 굿판은 ≪온갖 차별로 상처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맺힌 가슴을 한번 풀어보자≫는 진행자의 말로 시작됐다.

≪이 땅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상처받은 때가 언제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행사에 참여한 3백 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훨씬 적을 때≫,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엄마의 모성을 보호받지 못할 때≫, ≪이런 저런 핑계로 퇴직금, 상여금 등을 착취할 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각종 휴가 등을 없애려고 할 때≫ 등 대오 곳곳에서 그들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하대 미화원 노조의 최옥순씨는 ≪20년을 일해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며 ≪부당한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각오를 밝혀,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인천, 안산, 부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성노동자들은 부당 차별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적용 등 염원을 적은 종이를 새끼줄에 엮어 태우며 이들의 소망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했다.

굿판을 마친 후 이들은 한나라당사와 전경련 회관 앞으로 행진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비정규직 법개정 △노동3권 보장 △노조 탄압 중지 △비정규직 양산주체 각성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여성단체들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모성보호관련 법 준수와 사용활성화 대책 마련, 가내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차기 정부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여성노동 3대 과제로 선정,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노동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07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 개최

3월 10일 12시 대학로에서 열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여성연합, 경실련, 문화연대 등 108개 단체)는 3월 8일 12시부터 대학로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호주제 폐지.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주 슬로건으로 하는 제18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3.8 세계여성대회는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단결권 인정을 내세운 날로서 여성 권익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이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여성대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85년부터 개최했으며 1994년부터는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로 진행되어 왔다. 올해 여성대회는 여성단체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던 여성대회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일반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데 의의가 깊다.

여성대회에 참여하는 경실련 이재현간사(29. 회원사업국)는 ≪이번 여성대회는 비정규직 확산 규제, 양성평등 교육, 장애여성 자립, 여성농민 전문화, 성희롱 예방, 30% 여성할당, 군축.평화.통일, 여성운동 자립의 과제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시민사회운동의 시급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는데 뜻이 깊다≫고 말했다.

부시 미국대통령 올해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올해의 여성권익 디딤돌 &걸림돌≫을 발표했다.

≪올해의 여성권익 걸림돌≫에는 △도지사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한 제주도지사 △군산시 화재참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군산경찰서장과 군산시장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며 성매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황성주 판사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MD강행 시도,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이 선정되었다.

여성연합은 매년 3.8 세계여성대회를 기해 전년도부터 당해 세계여성의 날까지 1년여동안 벌어진 갖가지 사회이슈들을 정리하여 여성권익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여성권익 디딤돌≫로, 여성권익과 인권을 크게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를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박신용철
2002/03/05 시민의 신문

3.8 정신 계승하여 진보적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2002선거 승리하자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2002년 3월 8일

1908 년 3월 8일. 죽음의 장시간 노동에 맞서 싸운 여성노동자의 투쟁으로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요구한 날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려 한다. 94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도 여성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늘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예매춘, 감금매춘이 성행하고 있고 2002년 우리는 또다시 군산에서 꽃다운 자매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달라진 게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성별 불평등한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장시간 근로와 맞바꾼 소수의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모성보호법 역시 그나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2001년 한 해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벌여왔었다. 또한 여성차별의 근원인 호주제 철폐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으며 2002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호주제 철폐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담아 ≪호주제 철폐를 위한 민주노동당 가족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우리 당이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전민중적인 투쟁을 쉼없이 하여왔지만 가진자들만을 위한 의회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확인하여 왔다. 여성관련 노동법, 호주제, 성매매 관련법 등 여성의 지위를 제한하는 온갖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사력을 다해 싸워왔으나 권력다툼만 일삼는 현 정부와 국회는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누차 확인하여 온 것이다.

억압적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변혁이 필요하며 그것은 진보적인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

우리 당은 지난 3월 4일 중앙위원회에서 광역비례대표 여성후보 순위를 1,3,5순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을 당규로 명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당 내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당의 확고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가부장적 악습을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고 이것을 실재로 실천에 옮기자는 당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써, 여성의 권익 실현을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전 당원의 결의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공론화 요구

사회 각계 인사 988명 시국선언

강원룡목사, 문정현신부, 박상증참여연대공동대표 등 사회각계 인사 988명은 ≪정부는 발전소 매각에 대해 책임있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월 7일 오전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대표 30여명은 ≪발전소 매각에 대한 사회각계 인사 시국 선언≫을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내에 발전회사를 서둘러 팔겠다는 태도는 올바른 국론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발전소의 미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경영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면서 민주적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 988명은 열흘 넘게 계속되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가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거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정부와 노조에 성실한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수원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7

김근태의 양심고백을 제도개선으로

참여연대 등 주최 토론회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장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김민전교수)

≪1년에 2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 자금으로 전환해서 후보자들이 음성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김민전교수)

≪현재 당비를 걷어서 정치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후원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향우회나 동문회에 나가는 시간이 많다.≫(천정배의원)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조사하고 상대 국회의원이 조사할 것인데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하냐.≫(김민전교수)

김근태고문의 경선자금 ≪양심선언≫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6일 참여연대와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 주관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불법선거자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김근태 ≪양심고백≫이 개인적인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웹사이트에서 682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김근태고문의 정치자금 고백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1%가 김고문의 경선자금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매우 긍정적 67.0%, 긍정적 27.1%)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다른 최고위원 경선 후보들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93.4%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고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야한다≫(44.3%)는 응답이 ≪하지 말아야 한다≫(52.3%)는 응답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임경환기자
오마이뉴스 2002/03/07

한호석소장의 디씨 통일강연회

지난 3월 2일 저녁 워싱턴디씨 인근 에넨데일 소재 한인연합회관에서는 6.15공동선언실현 워싱턴위원회의 주최하에 처음으로 통일강연회가 열렸으며 50여명 가량의 동포한인들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강사로 참석한 한호석통일학연구소소장은 분단체계에서는 민족이 살아나갈수 없을 것이며 과거 일제시절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민족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수 없듯이 통일을 하지 않으면 민족으로서 존재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IMF사태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고 30, 40대 직장인의 88.3%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며 주요 이주국으로 카나다, 호주, 유럽 등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국가들이 선호지역으로 꼽혀온 이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분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으로서 분단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 .

이렇듯 반만년 역사의 단일민족이 불과 50년의 분열로 영원히 갈라질수는 없으며, 분단으로 인한 차이보다는 오랜 세월 다져진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분단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을 미룰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에 있은 남북간 어린이들의 문화교류를 통해 젊은층일수록 짧은 시간안에 금방 가까워지고 헤어질때 서로 아쉬워 눈물을 흘리면서 이질감이 없어졌던 경험에 비추어 남북이 정치적으로 결심만 하면 통일은 곧 실현될 수 있을것으로 낙관했다.

한소장은 비록 이남이 IMF사태를 겪었지만 그 이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인구수를 감안한 국민총생산(GDP)에 기초한 경제력은 세계 10위 이내에 들 정도로 막강하며, 이북의 군사력은 전 세계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4개국안에 드는 것으로, 이남의 경제력과 이북의 군사력이 합쳐진다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남북의 정상이 서명한 6.15공동선언은 통일실현의 방도와 방법을 분명히 명시해준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실천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서 특히 제 2항에서 남과 북이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 공통성이란 바로 ≪화해, 협력, 교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민족간의 화해, 협력, 교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강대국이 출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며 첫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외세가 통일을 원치않고 있고, 그중 미국 특히 부시정부를 꼽았으며, 민족 내부적으로는 분단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 세력, 반통일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속에 다져온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소장은 미국이 지난 70년대 최고의 외교전략가 헨리 키신저에 의해 ≪두개의 코리아정책≫이 작성된 이후 변함없이 이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재작년 올브라이트국무장관의 평양방문시 동시에 평양에 방문했던 중국의 국방장관이 작성한 비밀문건에 의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코리안들의 단결이라고 명시했음을 밝혔다.

또한 작년 3월 8일 한미정상회담때 부시 미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북에 전력을 공급하지 말 것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번 2월 방한때도 이를 거듭 확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고 한반도 분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미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정부에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신필영 6.15실현위 상임위원장은 3.1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최대과제인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강연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주기자
민족통신 2002/03/06

김준배씨 주요 사인은 구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97년 9월 수배 도중 광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발표된 김준배(당시 26세.한총련 투쟁국장)씨의 주요 사인이 구타라는 일본 법의학자의 소견서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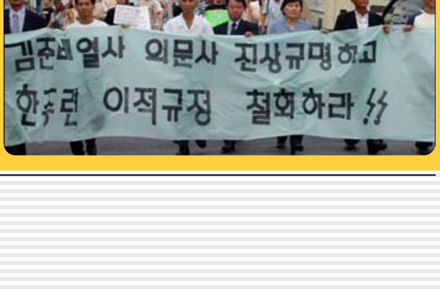
이 법의학자는 위원회가 보낸 시신 사진과 부검 감정서, 국내 법의학자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최근 金씨의 주요 사인은 추락보다 구타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그동안 金씨의 사인에 대해 추락 또는 추락과 구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지만, 구타가 주요 사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金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사실을 지난해 9월 밝혀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말 일본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했었다.

위원회측은 金씨가 후배가 사는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포위하자 13층 아파트 케이블선을 타고 달아나다 3층 부근에서 떨어졌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남궁욱기자
중앙일보 2002/03/07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대하여 (3)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59호)

≪실천투쟁에서도 시작을 잘 떼야 처음부터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고 대중의 투쟁기세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투쟁의 앞길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 . .

투쟁에서 시작을 잘 하려면 계기를 바로 선택해야 한다. 4.19의거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과 응분이 3.15부정선거에 의해 폭발적 양상으로 번지게 된 상태에서 발생한 김주열 소년의 학살 사건을 도화선으로 폭발하였고 광주항쟁은 독재에 대한 민중의 농축된 불만이 전두환 역도의 5.17폭압조치를 계기로 폭동에로 넘어 갔다. 그리고 6월 민중항쟁과 박종철, 이한열 역사의 희생 또한 지난해 5월 대투쟁과 강경대 열사 살해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계기란 바로 이처럼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투쟁국면이 성숙된 시기에 사회적 격분과 민중적인 충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건이다.

변혁운동실천에서는 이같은 계기점들을 제때에 마련하고 그것을 활용해 변혁투쟁을 지체없이 개시해야 민중의 응축된 불만과 고양된 변혁열기를 분출시켜 정국을 변혁의 편에 유리하게 급변시킬 수 있고 민중적인 투쟁으로 적을 타도하고 변혁투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계기란 어느 때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계기란 피어린 투쟁속에서 성숙되는 변혁정세 속에서 생겨나는 사건으로서 계기를 놓치면 투쟁국면을 잃어버리고 만다. 결국 조성된 계기점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때를 놓침이 없이 기동적인 공격을 조직한다면 투쟁의 주도권을 잡고 적을 위기에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면서 계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김빠진 투쟁이 될 뿐만 아니라 적의 역습을 받아 투쟁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세가 성숙되고 행동계획이 선 다음에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계기를 올바르게 포착하고 투쟁을 결단성있게 개시해야 한다.≫(운동의 형태들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서 좌우경적 편향들을 극복하려면 투쟁을 대담하게 개시해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투쟁을 계획대로 끝까지 과감하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투쟁의 지도핵심들이 투철한 변혁적 입장과 원칙성, 높은 책임성과 완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변혁투쟁을 교살하기 위한 적들의 수법은 항상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숨돌릴 틈을 얻어 반격을 가하기 위한 회유, 기만 전술로 나올 수도 있고 힘으로 말살하기 위한 공개적인 폭력탄압으로 나올 수도 있으며 투쟁대열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심리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적들의 이같은 흉계를 저지 파탄시킴이 없이는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혁투쟁에서는 적들의 그 어떤 회유, 기만전술과 심리작전에도 변혁적 입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투철한 원칙성, 그 어떤 폭압과 탄압에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투지와 완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투쟁지휘부의 확고부동한 변혁적 입장과 결단성있는 활동, 임기응변의 능숙한 지휘는 투쟁대중의 동요를 극복하고 그들의 투쟁열기를 계속 발양시켜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가 된다. 우리는 운동형태의 선택과 적용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작한 싸움은 끝을 보는 투쟁으로 만들어 개개의 행동전에서 결실을 축적해 나가야 하며 결정적 시기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의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은 오로지 변혁운동가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만 변혁실천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변혁운동가들과 조직들은 주체의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불면불휴의 투쟁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 변혁운동 수행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지평과 일대 전환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운동의 형태를 선택하고 적용하는데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시작부터 투쟁을 계획대로 과감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다음으로 정확한 투쟁전술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투쟁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다.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내외정세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대중의 의사와 정서에 맞지 않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투쟁전술을 제시해도 안되며 반대로 정세가 성숙돼 투쟁역량이 준비되었음

➡

광고

월간백서

통일여명편집국

★6.15백서 3월
≪통일아리랑≫을 창간하며
한민전 중앙위 호소문
공동선언이행 차단시킨 부시의 죄악백서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북남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자

★반미백서 3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주시
한민전 중앙위원회 당면투쟁구호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부쉬의 ≪악의 축≫론을 해부함
최고조로 달아오른 ≪반미≫감정
우리 체제에 대한 부쉬의 망발
부쉬패거리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

★진보정당백서 3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인터뷰
≪반조선로동당≫ 요구는 분열주의
민주노동당 2001년 사업평가, 계획
민주노동당의 시급한 전략문제

★학생운동 백서 3월
대중속에 뿌리박은 산조직으로 되려면
현 정세와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당의 영도를 받들고 주체혁명위업 완성하자
학생운동 당면핵심과제는 분파주의 척결

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우물쭈물 하면서 혁명적인 투쟁전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또한 투쟁방식을 구사하는 데서 학생대중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선택되어야 한다.

학생대중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전술과 투쟁방식을 능숙히 구사할 때에만 학생운동이 강력한 대중적 운동으로 강화될 수 있다≫(현시기 학생운동강화의 요체, 구국전선 2000 9 21)

≪오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부시방한반대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반부시반미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단체들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에 걸맞게 부시방한의 목적과 그 위험성 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대대적인 반부시반미분위기를 적극화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노근리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 등 여러 반미투쟁역량을 총집결해서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야한다.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파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한다.

이미 지난 2일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의해 나선 여건에서 그들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전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친미사대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역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한다.

이렇게 하여 부시의 방한이 어제날의 식민지, 고요한 뒷동산에 대한 방한이 아니라 제놈을 맞아줄 졸개도, 발붙일 한치의 땅도 없는, 있다면 분노한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만이 꽉 차넘치는 땅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구국의소리 2002 2 18)

≪지난 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소속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반부시시위를 벌였으며 14일에는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저지를 위한 투쟁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한데 이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600여개의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일 부시방한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 . .

왜 부시의 방한을 끝내 저지하지 못했는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온 국민의 투쟁열의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시방한저지투쟁을 보면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각기 분산적으로 미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 ***********. 그리고 이번 반부시투쟁에서 노동자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진출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지 않았는가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이해의 공통성을 갖는 반미투쟁을 하나로 묶어내고 보다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반미공동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각 운동단체들이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의 깃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배가의 힘과 위력을 발휘할수 있음을 잘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대중운동에서 주도세력인 노동자대중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번에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을 반드시 저지시켰을 겁니다.

부시의 방한이후 지금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실현투쟁에서는 더큰 **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 기여든 부시의 발자국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채찍질이 노골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는 저들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으로 이 땅에서 대량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실업자와 ***** 가정파탄이 낳은 방랑아, 유랑걸식자들이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 사회각지에 꼬리를 물고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대북강경론을 펴 고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며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육무기들을 이 땅에 마구 끌어들여 북침전쟁열을 고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 겨레가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결국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부시의 한국행각을 통해 드러낸 미국의 본심입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마땅히 대중투쟁의 앞장에서 이번 반부시투쟁으로 고양된 반미투쟁을 더 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자, 구국의소리 2002 2 20)

(내일 계속)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의 통일방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의미 -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통일방안은 우리 민족의 근본 요구와 리익에 맞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나라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로서 민족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게 하는 전민족대단결의 통일방안이다.

그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철두철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명시한 통일방안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운명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는가 하는 것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민족운명개척의 주체인 민족이 어떻게 단결하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그런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운 련방제 형식을 통일방도로 제시함으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민족공동의 륭성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명시하고 있다.

련방국가형성에서 그 어떤 계급, 계층에서만 특권이 부여되거나 일방적인 의무만을 부여한다면 련방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 동일한 사회제도가 아닌 서로 상반되는 제도들이 있고 그로부터 각이한 사상,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민족이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통일하여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중시하고 전면에 내세우며 그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립장에서 북과 남이 민족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근본리념이다.

민족은 이여의 모든 사회생활단위의 웃자리에 놓이는 기본생활단위로서 개별적인 민족구성원들이나 일정한 계급 또는 집단의 요구와 리익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더 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은 전체이고 계급, 계층은 그 한부분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각이한 사상과 리념, 요구와 지향을 가진 계급,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을 수 없는 것이며 각이한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 오랜 력사적 과정을 두고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바로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바탕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명시하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정부 구성과 기능,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국호문제, 련방국가형성이후 10대시정방침에 대한 규제가 이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한민족안에 서로 다른 제도에 기초한 련방을 형성하는 조선에서 모든 것을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게 공명정대하게 제시하여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들고나가는 민족의 요구와 리익 속에는 공산주의자의 요구와 리익도 있고 자본가의 요구와 리익도 있으며 무신론자의 요구와 리익도 있고 유신론자의 요구와 리익도 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식의 독특한 통일방도로 명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옹호하며 온 민족의 대단결을 기본전제로 하여 통일국가창립의 길을 밝힌 통일방안인 것으로 하여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